

언론 사람

07
2020
VOL.241



04 인터뷰 人+人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 Newmedia of the World
GPT 언어모델 제품화와
저널리즘의 미래

08 세상사는 法
기사 제목도 명예훼손이
되나 (feat. 트위터)

12 이달의 시
'선우(善友)'가 되어
'선연(善緣)'으로 만나는 생명들

04 인터뷰 人+人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 Newmedia of the World
GPT 언어모델 제품화와 저널리즘의 미래

08 세상사는 法
기사 제목도 명예훼손이 되나
(feat. 트위터)

10 돋보기
소나무와 측백나무

12 이달의 시
'선우(善友)'가 되어 '선연(善緣)'으로
만나는 생명들

14 단어의 중력
미래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19세기의 자매들과 21세기의 공감,
작은 아씨들

18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권오근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코비즈 T 02-2272-1400

표지 작품 Payless Images

<Graceful Purple Flower>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
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
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
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
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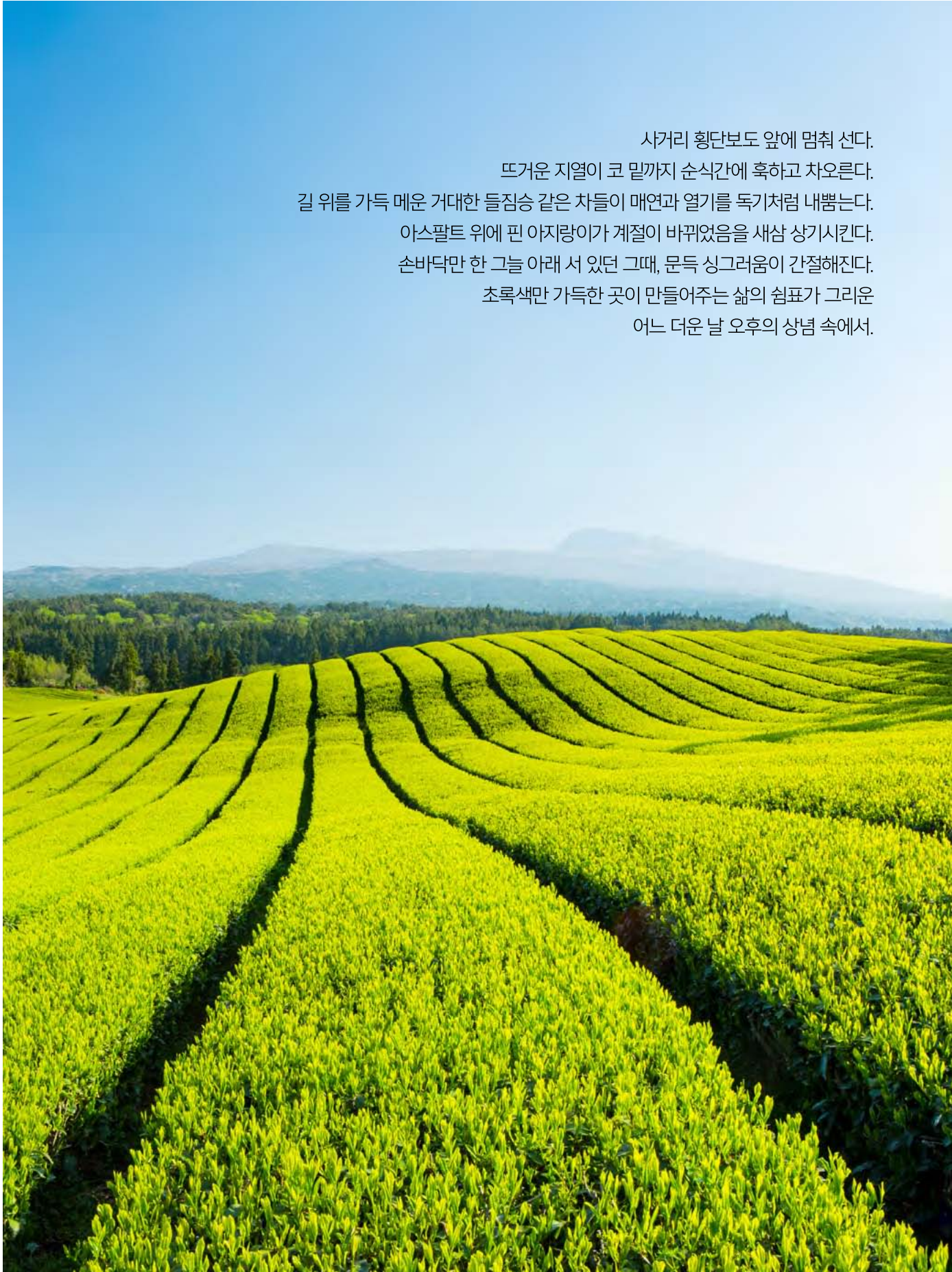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
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
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다.
뜨거운 지열이 코 밑까지 순식간에 훑히고 차오른다.
길 위를 가득 메운 거대한 들짐승 같은 차들이 매연과 열기를 독기처럼 내뿜는다.
아스팔트 위에 핀 아지랑이가 계절이 바뀌었음을 새삼 상기시킨다.
손바닥만 한 그늘 아래 서 있던 그때, 문득 싱그러움이 간절해진다.
초록색만 가득한 곳이 만들어주는 삶의 심표가 그리운
어느 더운 날 오후의 상념 속에서.



헌법, 우리 삶의 가치를 담은 그릇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윤리규범과 새로운 인권 감수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헌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언론사람>은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준일 교수를 만나 헌법의 의미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올해로 헌법이 제정된 지 72주년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지 30년 이 넘은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A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7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헌법 전문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와 의회의 형태 이외에도 헌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권리를 추가하는 데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그런데, 헌법 개정은 국가 질서 전반에 대한 관한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정말 많은 견해와 이해가 충돌합니다. 헌법이 개정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2월에는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인권위에

서도 차별금지법 입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차별금지사유마다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장애인차별금지, 비정규직차별금지, 남녀차별금지, 연령차별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직법이나 절차법에 해당하고,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의 통합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차별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일법을 통해 판단 기준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고, 이주민이면서 비정규직인 복합적 차별이 발생한다면 단일한 기준에 의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괴롭힘' 같은 문제는 우리 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이주민, 특정 지역 사람들, 여성, 장애인에 대한 경멸이나 비하를 담은 혐오표현 같은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고용과 관련 없는 괴롭힘,

특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괴롭힘은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차별의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역별로 차별금지법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보았을 때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피해자의 구제와 차별가해자의 제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 차별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일반적으로 정하는 통합 차별금지법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단일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대를 반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헌법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각국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도 하고, 유럽처럼 인격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허위조작정보나 공인에 대한 혐오라는 명목으로 선불리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 없이 규제를 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강자가 약자를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수자들을 비하하고 경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합의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의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차별이 강화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인권위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느 음식점에서 외국인 입장을 거부한 사례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거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가 급증했을 때 손님이 중국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켜 감염자가 많은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개별 사례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특정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배제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려고 하는 의식이나 현상들이 있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차별적 요소 역시 우리 인식과 현실의 문제가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등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을 구분하고 열등한 집단은 배제하려는 경향이 사람들 의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출신 백인에 비해 동남아시아나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따른 차별인 것이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인 결과가 더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죠. 4차 산업이든, AI든, 아무리 기술과 양태가 복잡해도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우리는 민주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경직된 주장으로 인해 논의가 극단으로 치달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보다 성숙했지만, 여전히 진영논리와 같은 단편적 관점을 내세우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관한 논의와 이해의 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독일 헌법처럼 기본권을 가장 앞으로 오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성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상충하는 의견들이 있을 때는 서로 조정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하나의 존엄한 존재로서 인정한다면 헌법적 가치로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라는 것을 만들고, 국가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로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거창한 정치적 담론에 대한 어렵고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삶의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하고 친근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헌법에 담긴 정신이 우리 삶 속으로 더 잘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요?

* 편집자주 '차별금지법' 용어와 관련,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GPT 언어모델 제품화와 저널리즘의 미래

‘가짜뉴스’를 양산할까봐 소스코드까지 감췄던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마침내 상용 제품으로 출시됐다.¹⁾ 지난 5월 말, 더욱 향상된 GPT-3²⁾ 모델을 발표한 바 있는 OPEN AI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가짜뉴스 생산에 활용되는지 여부를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겠지만, 상품화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GPT라는 언어모델은 자연어처리의 기반이 되는 조건부 확률 예측 도구다. 쉽게 말해 “나는 내일 서울로 (?)”라는 단어의 순차적 배열이 존재할 때 (?)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자연스러운지를 추정하는 알고리즘 모델이다. 한국인들이야 당연히 “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등등의 단어 조합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기계는 다르다. 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 관건이면서 동시에 상품적 가치를 좌우하게 된다.

GPT를 상품화한다는 건 비용만 감당할 수 있다면 누구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기자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재, 그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최소 기능을 기계가 담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입 규모의 확대로 비용이 저렴해



지면 GPT가 편집국의 기사 생산 기능을 부분 대체하는 것은 이젠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GPT의 강점, 특히 GPT-3 모델의 강점은 기사 생산에 적용하더라도 추가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개발된 모델에 약간의 형식적인 데이터만을 알려주면 높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를 퓨샷러닝(Few-Shot Learning)이라고 한다. 기사 생산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존 언어모델과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기사란 이런 형식을 갖춘 이런 글쓰기 유형이야'라고 조금만 알려주면 인간도 구분하기 힘든 기사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500단어 이하의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GPT-3 175B 모델이 제작한 뉴스를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평균 정답률은 52%였다.³⁾ 2가지 뉴스를 놓고 기계가 작성한 것인지 인간이 작성한 것인지 맞히는 게임에서 52%가 나왔다는 건 사실상 구분을 거의 못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그만큼 기계와 인간이 제작한 뉴스 간의 품질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단어 이하의 기사일 때와 500단어 이하의 기사일 때를 비교해 봐도 평균 정답률은 52%로 차이가 없었다. 적어도 500단어 이하 단문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계가 넘겨받아도 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GPT-3는 문법 규정, 오자의 수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법, 오타자로 인한 언론사의 신뢰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이 언어모델의 도입과 활용은 저널리즘의 신뢰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 인력의 이탈로 온라인 기사의 오타자와 문법 오류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다. 국내에서도 200~500단어 수준의 단순 보도기사는 저널리스트들이 담당해야 할 중차대한 업무영역이 아니다. 정형화한 기사 형식, 뻔한 내용의 구성,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인해 저널리스트 특유의 창의적 가치가 개입되기 어려운 기사 유형이었다. 정보의 정확성만 보증된다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언론사로서는 포기하기는 어려운 기사 형태다. 속보 경

쟁에서 대량의 트래픽을 끌어올 수도 있고, 단순 정보 전달만을 기대하는 수용자들의 바람도 적지 않아서다. 과거 퀴츠(Quartz)라는 미디어는 퀴츠 커브(the Quartz Curve)를 소개하면서 뉴스 소비자들이 많이 읽는 기사의 길이는 통상 500단어 이하이거나 800단어 이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만큼 500단어 이하 단순 정보 기사가 지니는 가치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영역에 기계의 성능이 높아져 기자 대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800단어 이상의 장문 기사 작성은 여전히 기자 고유의 영역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OPEN AI는 800단어 이상 장문을 대상으로 GPT-3 모델을 테스트하지 않았다. 기사 작성만을 위해 개발된 AI가 아니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장문 영역에서 기계가 좋은 성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정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문장의 창의도와 복잡성이 증대될수록 기계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여기에 '알고리즘 작성 기사의 시대에 기자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널리즘은 신뢰의 위기라는 난제 앞에 길을 헤매고 있다. 수용자들은 더 다양한 관심사를 더 깊이 더 쉽게 전달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기자들에겐 그럴 여유가 없다. 광고 수익의 급전직하로 탐사와 조사에 할당할 수 있는 기자 수와 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한가하다는 내부의 질책 앞에서 무력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짧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 기자들의 하루를 잡아내고 있다. 저널리즘 품질 추락의 악순환이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계의 보조를 검토할 때가 됐다. 기자를 기자답게 인식시키는 기사 생산, 그것에 집중할 시점에 왔다. 분석, 탐사, 설명 등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기사 생산에 저널리즘의 미래가 달려있다. 보도자료를 모조하고 재구성하는 기사에 귀한 저널리스트 자원을 투입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한글화한 GPT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널리즘이 잃어버린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기계 저널리즘의 도입을 망설이는 게 한가해 보이는 시점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1) <https://www.theverge.com/2020/6/11/21287966/openai-commercial-product-text-generation-gpt-3-api-customers>

2) <https://arxiv.org/abs/2005.14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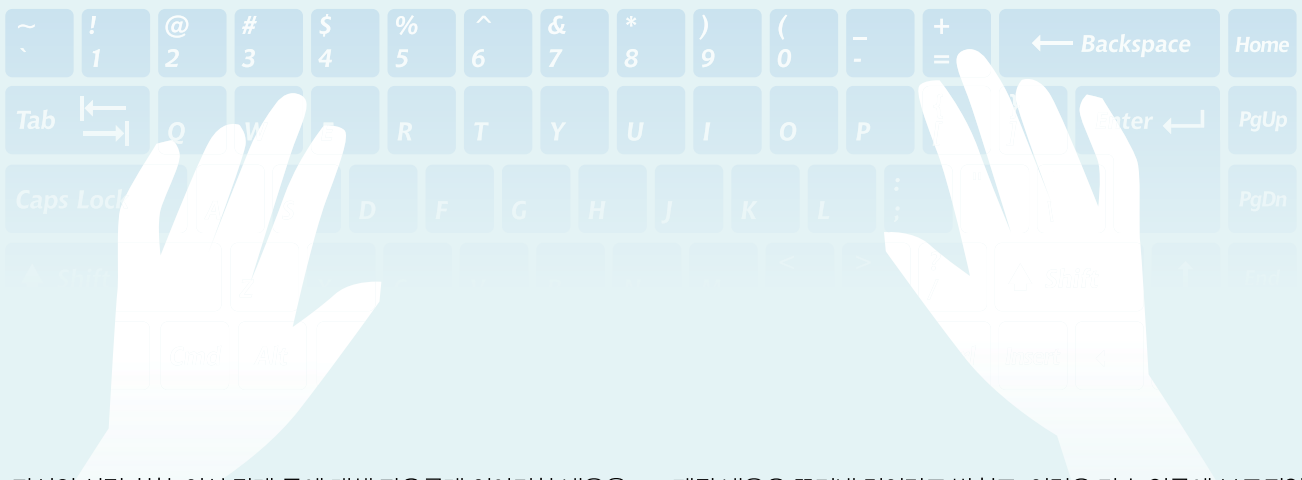
3) 인간의 입장에서 정답률이 높으면 기계가 작성한 기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정답률이 낮으면 기계가 작성한 기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정답률이 낮다는 건 거꾸로 기계가 쓴 것을 정확히 구분해 그 정답을 의도적으로 피해 갔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50% 내외가 구분을 못하는 정도의 척도로써 사용되는 것이다.

기사 제목도 명예훼손이 되나 (feat. 트위터)

#여중생
#명예훼손



#하루
#뉴스



A는 자신의 성적 취향, 이성 관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 내용을 대화집 형식으로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고등학교 때 여중생과 첫 경험을 가졌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도 있었다. 10년 후 A가 공직자가 되면서 저서에 나타난 왜곡된 성 인식, 여성관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A는 문

제된 내용은 꾸며낸 것이라고 밝혔고, 이것은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편 B 언론사는 홈페이지에 “[기고]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고, 언론사 트위터 계정에는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 너무나 아픈 상처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

고, 제 스스로도 애써 잊고 살려 했지만... 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라는 단문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기사 링크를 걸어두었다.

한편 기고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필자는 A의 여중생 사건을 접하면서, 자신이 16살에 겪은 성폭력 피해가 떠올랐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안에서 굶고 있는 상처가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가십거리에 불과한 것을 보며, 한국에 또 다른 16살 소녀가 있을까 두렵다. 나는(정치인 중 한 명에 불과한) A라는 개인에게는 아무 감정도 없지만, A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과거의 나를 포함한 어린 소녀들에게 “니 잘못이 아니야.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더럽힐 수 없어”라고 알려 주고 싶다.”라는 것이다. 즉 기사의 제목과 첫 부분만 보면 기고한 필자가 A의 그 ‘여중생’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전체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는 “인터넷 언론의 특성상 독자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접할 때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사 제목으로 “A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비유적이고 압축적인 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인 보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①기사 제목, ②홈페이지 게재 기사, ③트위터 게재물 모두에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사가 허위사실인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인 바, B 언론사는 A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7460 판결).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 ①‘기사 제목’은 별개의 독립한 기사가 아니라고 보아, 별도로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②홈페이지 게재 기사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③트위터 게재물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7501 판결).

먼저 1, 2심의 판단이 달랐던 ‘기사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기사 제목에 대해서 대법원은 “언론 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거나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 행위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1심은 바로 해당 사건의 제목이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별개의 독립한 기사’라고 본 경우이다. 그렇지만 2심은 “내가 〇〇〇이다”라는 표현은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사이의 연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통용되는 문구라면서, 기고자와 유사한 경험을 한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보호 필요성 및 그들과의 연대의식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목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B 언론사는 기고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기고문인 취지를 밝히기 위하여 기고자가 사용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제목 앞부분에 “[기고]”라는 표현을 덧붙여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를 읽은 일반 독자들이 그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서 관련이 없다가나 그 제목이 본문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여 그 제목 자체만으로 독립된 기사로 여길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홈페이지 게재 기사와 관련하여서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면, 허위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것이므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즉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①기사 제목, ②홈페이지 게재 기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부정되었다.

다만 ③트위터 게재물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했는데, 이에 대한 2심의 판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재판부는 “트위터에는 기고문이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트위터 사용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큰 부분만 골라서 인용한데다가, 비록 홈페이지 기사 연결 링크가 있기는 하나,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생각이나 의견 등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매체인 트위터에서는 사용자가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고 트위터에 게재된 글 자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 사실에 대한 암시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홈페이지 기사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유튜브나 트위터 등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트위터의 경우 글자 수 제약이 있는 등 게시 방식이 다르고, SNS마다 구독자 성향, 주된 게시물 종류 등이 달라서 언론사는 각 SNS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에 따라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소지가 있으므로, 한 번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나무와 측백나무

<증종제(贈從弟)> 제이수(第二首)

사촌 동생에게 주다(제2수)

후한(後漢) 유정(劉楨, ?~217)

亭亭山上松, 정정산상송
우뚝 솟은 산 위의 소나무에

瑟瑟谷中風. 슬슬곡중풍
세차게 골짜기 바람이 불어댄다.

風聲一何盛, 풍성일하성
바람 소리는 한결같이 그리도 거센데,

松枝一何勁, 송지일하경
소나무 가지는 한결같이 그리도 굳세구나.

冰霜正慘愴, 빙상정참창
얼음과 서리가 아무리 차가워도,

終歲常端正. 종세상단정
일 년 내내 늘 반듯하구나.

豈不羅凝寒, 기불라응한
어찌 매서운 추위를 만나지 않으리오만,

松柏有本性. 송백유본성
소나무와 측백나무에는 타고난 성품이 있네.

정정(亭亭) : 우뚝 솟은 모양

슬슬(瑟瑟) : 바람이 부는 소리

참창(慘愴) : 몹시 차갑다.

라(羅) : 만나다, 당하다. '리(罹)'와 같다.

유정(劉楨)은 후한 말엽의 문학가로, 자(字)가 공간(公幹)이다. 문재(文才)가 뛰어나, '조씨 삼부자'로 칭해지는 조조(曹操), 조비(曹丕), 조식(曹植)과 교류하면서 문학 집단을 이루었다. 그들이 활동한 시기가 후한 헌제(獻帝)의 건안(建安) 시기라서 '건안칠자(建安七子)'로 칭해진다.

조비(曹丕)가 그를 평하여, "세속을 벗어난 뛰어난 기상이 있다. 그의 오언시는 요즘 사람들보다 월등히 앞선다."라고 하였듯이, 유

정은 기개가 있었고 그의 시어는 간결하면서 힘이 있었다. <사촌 동생에게 주다(贈從弟)> 3수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중에서도 위에 인용한 제2수가 특히 잘 알려져 있다. 이 시에서는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비유로 사촌동생을 찬미하면서, 자신의 절개를 굳게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로부터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굳세고 변함없는 절개의 상징이었다. 공자가 <논어(論語)자한(子罕)>편에서,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子曰, 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라고 한 뒤로 그 상징성은 더욱 선명해졌다. 장자(莊子)는 공자의 논조를 계승하여, “큰 추위가 이르고 서리와 눈에 내리게 되면, 나는 이로써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무성함을 알게 된다(大寒既至, 霜雪既降, 吾是以知松柏之茂也).”라고 했다.[<장자(莊子)양왕(讓王)>] 순자(荀子)도 일찍이, “날씨가 춥지 않으면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알아볼 수 없고, 일이 어렵지 않으면 군자를 알아볼 수 없다(歲不寒, 無以知松柏, 事不難, 無以知君子).”라고 하여 공자의 말씀에 부연 설명을 했다.[<순자(荀子)대략(大略)>]

도연명은 그 유명한 <음주(飲酒)>시 제8수에서 소나무를 제재(題材)로 하여 자신의 의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青松在東園, 푸른 소나무가 동산에 있는데,
衆草沒其姿, 많은 풀들로 그 자태가 묻혔더니,
凝霜殄異類, 된서리가 다른 것들을 다 죽이자,
卓然見高枝. 우뚝하게 높은 가지를 드러낸다.
連林人不覺, 뽕뽕한 숲에서는 사람들 못 느끼더니,
獨樹衆乃奇. 홀로 선 나무가 되자 많은 이들이
특별하게 여긴다.

提壺挂寒柯, 술병 들어 겨울 가지에 걸어 놓고,
遠望時復爲. 때때로 멀리 바라보기도 한다.
吾生夢幻間, 우리 인생이 꿈과 환상 가운데의 삶인데,
何事繼塵羈. 어찌하여 세속의 굴레에 매일 것인가.

순자(荀子)의 언급처럼 소나무는 다른 풀들이 무성할 때에는 돋보이지 않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우뚝 솟은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모습은 힘든 때일수록 굽히지 않는 절개에 대한 최적의 상징이다. 도연명은 이 시에서 소나무의 기상처럼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절개를 지키리라 다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추사는 벼슬길이 순탄하다가 세도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55세(1840년)에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남단의 섬에 갇힌 채 가시나무 울타리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자 이상적(李尙迪)이 먼 제주까지 찾아 주었다. 이후에도 그는 역관으로 자주 중국을 드나들면서 귀한 책들을 구해서 보내고 연경 소식을 전해주었다. 알고 지내던 모든 이들이 거의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 상황에서 이상적만은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스승에게 성심을 다했다. 추사는 이런 마음에 대한 고마움과 당부를 담아 세한도를 그려서 준 것이다.



사람들이 권력과 이익을 좇느라 신의를 저버리는 염량세태에, 멀리 유배되어 있는 자신을 살피주는 그에게서 “날씨가 추워진 뒤에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는 구절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리고 발문(跋文)을 지어 그의 행실을 칭송했다. 추사는 그 발문에서 <논어>의 이 구절을 인용한 뒤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도 똑같은 소나무와 측백나무이고, 날씨가 추워진 뒤에도 여전히 똑같은 소나무와 측백나무로다(歲寒以前一松栢也, 歲寒以後一松栢也).”라고 했다. 이상적이 자신을 따르고 배려해 주는 마음을 소나무와 측백나무에 비유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을 칭송하고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나이가 유정이 사촌 동생에게 써준 시의 내용처럼 앞으로든 그런 고품을 변치 말 것을 은연중에 당부했다.

소나무와 측백나무에 관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세한도를 본다면, 그 감상의 경계가 달라질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제자의 진심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을 한 폭의 그림과 한 편의 문장으로 전한 운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격조이다.

‘선우(善友)’가 되어 ‘선연(善緣)’으로 만나는 생명들

쭉부쟁이밭에 놀러가는 거위같이

송찬호

오늘도 거위는 쭉부쟁이밭에 놀러간다야
거위 흰빛과
쭉부쟁이 연보랏빛,
그건 내외시간도 아닌 분명 남남인데

거위는 곧잘 쭉부쟁이 흉내를 낸다야
쭉부쟁이 어깨에 기대어 주둥이를
비비거나 엉덩이로 갈아뭇개기도 하면서
흰빛에서 연보랏빛으로 건너가는 가을의 서정같이!

아니나 다를까, 거위를 찾으러 나온 주인한테
거위 그 긴 목이 다시
고무호스처럼 질질 끌려가기도 하면서

그래도 거위는 간다야
흰빛에서
더욱 흰빛으로
한 백년쯤은 간다야

-《분홍 나막신》(문학과지성사, 2016)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송찬호(1959~)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독일어 문법처럼 쉽게 언어구조의 심층을 허락하지 않는 웅숭깊은 내면이 느껴집니다. 대처에 나가 독문학을 전공하고서도 자신의 산골 고향마을(보은)로 자발적인 귀가를 감행한 송찬호 시인에게선 독자적인 회귀의 발길을 무심히 본처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건강한 자신(自信)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또 있습니다. 오직 시쓰기만이 평생의 직업인 송찬호 시인에게선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다운 자리에 정주하여 30년이 넘도록 시정신의 집을 한결같이 반듯하게만 지어온 예술인에게서 느껴지는 '수행의 외길' 같은 것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달에 함께 읽고 있는 그의 작품 <쑥부쟁이밭에 놀러가는 거위같이>는 이 시인이 등단 이후 30년을 맞이하던 해에 출간한 시집 《분홍 나막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인 생활뿐만 아니라 산골 생활도, 산골 생활뿐만 아니라 외길 인생도 꽤 무르익은 지점에서 출간된

이 시집 속의 작품들은 고요하지만 유머러스하고, 긴장이 있지만 여백이 가득하며, 심오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작품 <쑥부쟁이밭에 놀러가는 거위같이>는 제목부터가 흥미롭습니다. 거위가 쑥부쟁이밭에 놀러간다는 뜻밖의 사건, 아니 엉뚱한 조합과 융합이 유쾌한 파격을 만들어냅니다. 시골에 살아 보았거나 자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위와 쑥부쟁이에 대하여 잘 알 것입니다. 날개 달린 조류라고 하기에는 몸이 너무나 크고 무겁지만 백조처럼 흰 털이 눈부신 거위! 쑥을 닮았지만 조신한 품격 속에서 가을이 되면 보랏빛 꽃들을 대책 없이 피워내는 쑥부쟁이! 이 둘은 실로 무정한 먼 곳의 얼굴조차 모르는 타인들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둘을 유정한 지척의 연인 관계처럼 한자리에서 동거하게 합니다.

시인에 따르면, 거위가 연인의 마음으로 쑥부쟁이밭에 놀러 가면 거위의 눈부신 흰빛과 쑥부쟁이의 환상적인 보랏빛은 보기 드문 서정적인 풍경화가 됩니다. 아마도 거위의 흰빛과 쑥부쟁이의 보랏빛이 둘 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의 순정과 순수의 마음 빛인 까닭입니다.

이렇게 쑥부쟁이밭을 찾아간 거위는 쑥부쟁이 흉내를 내면서, 쑥부쟁이의 어깨에 주둥이를 비비기도 하고, 아예 쑥부쟁이밭을 엉덩이로 뭉개기까지 하면서 그들 사이에 일심의 장을 만듭니다. 투박하고 순진하나 진심이 가득한 거위와 쑥부쟁이의 사랑입니다. 시인은 이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흰빛에서 연보랏빛으로 건너가는 가을의 서정' 같은 신비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무지한 거위의 주인은 이들의 존재와 사랑을 거칠게 다룹니다. 주인의 마음엔 거위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만이 강할 뿐, 이들 두 생명체들 사이의 선한 사랑의 인연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참혹한 비애감에 빠지지만 그만이 지닌 시인의 눈으로 이들 두 생명들의 드물고 아름다운 사랑을 포착하고 기리면서 연장시킵니다. 시인은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그것을 거위의 마음이 된 듯, 단호한 어조로 힘주어 외칩니다. '그래도 거위는 쑥부쟁이밭으로 간다야!', '흰빛을 더욱 희게 만들면서 거위는 앞으로도 한 백년쯤은 쑥부쟁이밭으로 계속 간다야!'라고 말합니다.

거위가 쑥부쟁이밭으로 놀러 가는 일은 인간 너머 자연의 일입니다. 아니 인간 이전의 생명들의 삶이자 진실상입니다. 인간의 단견과 소심함으로는 온전히 포착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생명들은 선우가 되어 선연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울 뿐이지요.

미 래



신 번째 생일 새벽, 너는 공항에 있었다. 결코 젊다고 할 수 없는, 그러나 늙었다고 하기에는 억울한 나이. 백세시대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딱 절반을 산 것이니 반환점에 도달한 거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새로운 일도 없겠다고 너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걸어오거나 달려오면서 혹은 주저앉아 숨을 고르면서 바라본 풍경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나 무릎을 꿇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사과할 사람이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어마어마한 절망은 없었으나, 하지 못한 일은 많았다. 너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에메랄드 궁전에 가보고 싶었고, 틸틸과 미틸의 파랑 새를 보고 싶었다. 인어의 노래를 듣고 싶었고, 용이 뿜어내는 불길을 보고 싶었다. 열기구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고 싶었고, 경비행기를 몰고 사막 위를 날고 싶었다. 첫사랑과 첫 키스를 하고 싶었고, 남태평양에서 수영을 하고 싶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나사에 들어가고 싶었고, 베를린 필하모니와 협연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고, <사운드 오브 뮤직>과 <대부>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제법 노력을 기울여, 혹은 어영부영 이룬 꿈도 있었다. 피아노와 기타를 배웠고, 영어와 독어를 배웠고, 수영과 운전과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너는 신 살을 맞아,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기념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중 하나를 골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반환점을 돌아가는 너 자신을 위해 그 정도는 해야 했다. 목적지가 스페인이 된 건, 한때 네가 땀 흘리며 배운 플라멩코 때문이었다.

긴 여행을 마치고 비몽사몽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차를 빌려, 너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미리 예약해둔 코티지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밖



사진: 황경신

으로 나갔다. 하지만 마을에 있는 두 개의 레스토랑 모두 문이 닫혀 있었다. 겨우 아담한 마트 하나를 발견했지만, 물건은 많지 않았다. 너는 치즈와 바게트, 커피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다. 킹 사이즈 침대가 족히 들어갈 만큼 넓은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그럭저럭 관상은 생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비록 바게트는 딱딱하고, 치즈는 너무 짜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기묘하리만치 서늘했지만.

다음날, 너는 본격적으로 마을을 탐험했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집들, 잘 가꾸어진 정원, 예쁜 색깔로 칠해진 벽들, 목직한 나무 문이 달린 등대까지 구경했지만 인적이 없었다. 누군가의 소유지일 수도 있는 작은 언덕에서, 굴러다니는 딸감을 모아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눈인사 한 번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너는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웠다. 딱딱한 바게트와 짠 치즈를 먹으며, 일렁이는 불을 바라보았다. 옛날 사람들은 텔레비전 대신 모닥불을 보았을 거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 누군가는 한때 멋진 인생을 살았으나, 늙고 병들어 이미 세상을 떠났다.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마을도 늙었다. 젊은 태양 아래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몰려다니고, 엄마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기저귀를 넣고, 바다에서는 어린 물고기가 청년들과 함께 팔딱거리던 시절은 지났다. 그리하여 남은 것은 상흔을 어루만지듯 천천히 흘러가는 바람, 지난날을 흐릿하게 응시하는 한 줄기 햇살, 서서히 재로 변해가는 모닥불이었다.

스페인에서의 일주일도 그렇게 흘러갔다. 마지막 날, 너는 조금이라도 젊은 무언가를 보고 싶어 차를 몰고 옆 마을로 갔다. 마침 주말이어서 장이 열려 있었다. 테이블마다 맥주가 넘치고 생선 굽는 냄새가 사방에서 풍겼다. 마지막 밤을 위해 너는 정어리 두 마리와 아스파라거스 한 다발을 샀다. 그 노인을 발견한 건, 네가 시장을 빠져나오기 직전이었다. 늙은 저울과 함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노인은 너의 시선을 단호하고 묵직하게 맞받았다. 네가 본 것은 노인의 과거였고 동시에 너의 미래였다.

그날 저녁, 정어리 두 마리를 구워 먹고, 꺼져가는 장작불 앞에서 너는 플라멩코를 추었다. 십여 년 전에 익힌 스텝은 가물가물했지만, 그때의 음악은 머릿속에서 재생할 수 있었다. 남은 날들을 힘차게 달려갈 만큼은 아니어도, 반환점을 돌 만큼의 에너지는 얻었다고 너는 생각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일,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 기대를 품지 않는 일에도 에너지는 필요하다.

어린 시절에, 너는 미래를 꿈꾸었다. 아닐 미(未), 올 래(來), 국어사전은 ‘앞으로 올 때’로 그 단어를 풀이했지만,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직 오지 않은 때’였다.

네가 꿈꾸던 미래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영원히 오지 않을지라도, 너 역시 하나의 풍경으로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 남을 것이다. 삶의 엄중하고 공평한 잔인함에 등에 업고, 곧 사라질 현재를 응시하면서.



19세기의 자매들과 21세기의 공감, 작은 아씨들

어린 시절, 마르고 뿔도록 읽었던 루이자 메이 올컷의 '작은 아씨들'은 판타지와 다름없었다. 나와 다른 문화권,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네 자매들의 생활에는 나의 경험치와 견주어볼 만한 것이 많지 않았다. 나와 그네들은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하는 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이질감은 오히려 강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책에 묘사된 사교계 파티, 자연이 만들어준 스케이트장, 이웃집 소년이나 완고한 부자 할아버지 등은 내 머릿속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꿈속에 종종 나타났다.

자매가 없는 내게 아름다운 메그, 활달한 조, 수줍은 베스, 철없는 에이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화해도 마찬가지였다. 예쁘고 성숙한 메그를 제일 좋아했지만 네 자매에게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쯤은 그때도 알고 있었다. 자매들의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속편을 간절히 기다리기도 했다. 작가는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독서·논술 강사를 하며 다시 만난 '작은 아씨들'은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자매들의 개성도 더 강하게 느껴졌고, 남북전쟁으로 인해 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들 또한 생존과 자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잘 느껴졌다. 보수적인 한국사회나 내가 겪어온 일들과는 공통점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시절, 그 곳에서도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오히려 그 정도는 훨씬 심했고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여성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올해 초에 개봉한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작은 아씨들'(2020)은 원작의 사건들을 크게 변형시키거나 고전적인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21세기의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제와 형식을 세련되게 가공한 작품이다. 7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현재와 과거를 교차편집하면서 진행되는 이 영화에는 네 자매의 성

장 스토리와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별과 재회, 슬픔과 기쁨, 삶과 죽음을 경험하며 단단해진다. 나이가 들면서는 여성과 가난이라는 차별과 한계 속에서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행복해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다.

네 자매는 물론 늘 따뜻하고 다정한 엄마(로라 던), 개구지면서도 듬직한 로리(티모시 살라메), 보수적인 부자 고모(메릴 스트립) 등 조연 캐릭터와 배우들의 연기도 흥미롭고 훌륭하지만, 특별히 조명해 보고 싶은 두 인물이 있다. 먼저 둘째인 ‘조’(시얼샤 로넌)는 내레이터 역할을 하는 인물로, 그 시대가 숙녀들에게 요구했던 조신함 대신 뛰어난 지성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캐릭터다.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꿈에 조금씩 다가가려고 애쓰는 조의 모습에서는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느껴진다. 그러나 그렇게 씩씩한 조도 사랑하는 동생이 죽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짓눌린다. 글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으면서 조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무 일찍 거절했나 봐요. 로리요. (중략) 전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랑받고 싶어요. 제가 느끼기엔 여자도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과 영혼이 있고 외모만이 아니라 야심과 재능이 있어요. 여자에겐 사랑이 전부라는 말에 신물이 나요.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너무 외로워요.”

여성이라는 한계를 딛고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자의식과 함께 내면의 근본적인 외로움을 토로하는 이 장면은 상대적으로 보다 평등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도 절절히 와 닿는다. 조는 지금 자신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찾는 중이다. 그것은 타인의 잣대로는 재단할 수 없다.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가정을 이룬 메그를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막내인 ‘에이미’(폴로렌스 푸)는 이 영화에서 원작보다 훨씬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다. 어릴 때 조가 가장 아끼는 노트를 태워버린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에이미는 불 같은 기질을 갖고 있고, 조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 고모가 조 대신 그녀를 유럽에 데려간다고 했을 때, 에이미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뿌듯함과 함께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을 맛본



다. 성인이 된 에이미는 네 자매 중 가장 야심만만하고, 시대와 자신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 로리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부잣집 남자와 데이트 하는 에이미를 못마땅하게 보자 에이미가 말한다.

“원래 부자랑 결혼하려 했어. 그게 왜 창피해?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 운명처럼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중략) 여자는 돈 벌 방법이 없어. 생계 유지나 가족 부양도 힘들어. 돈도 없지만 만약 있다 해도 결혼하는 순간 남편 소유가 돼.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남편 소유야. 남편의 재산이지. 그러니까 속 편히 앉아서 결혼이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하지마.”

에이미는 혼자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다. 에이미의 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타인의 비난이나 시선에도 의연히 맞설 수 있는 주체성과 논리적인 사고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 현재로서는 에이미 같은 캐릭터가 소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이 사회 활동가가 될 수는 없던 시절의 이야기임을 감안하면 에이미의 지혜는 본받을 만하다.

<작은 아씨들>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에서 86만 명 정도의 관객을 모으는데 그쳤다. 하지만 익숙한 이야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한, 농치기 아까운 작품이다.

위원회 뉴스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6월 30일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데이터 시대, 저널리즘 그리고 인격권>을 주제로 공모한 기획논문 4편과 모욕죄의 적정성 등의 논의를 담은 연구논문 3편이 수록됐다.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 발간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6월 30일 계간지 「언론중재」 여름호(통권 155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의 대주제는 ‘새 국회 출범에 맞춰 본 20대 국회 미디어 입법 결산’으로 김주연 변호사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 제도 관련 입법 과제 검토」 등의 기고가 수록되었다.

위원회 사무처 인사 (2020. 7. 1.자 및 8. 5.자)

구분	성명	내용
승진 (7. 1.자)	김윤정	조정본부 조사1팀장(2급)
	안백수	국방대 안보과정 파견(2급)
	한혜연	조정본부 조사2팀 차장(3급)
	권영민	교육본부 홍보팀 차장(3급)
	김진하	충북사무소 소장(3급)
전보 (7. 1.자)	손정배	감사관
	여종국	조정본부 조사2팀장
	김주용	심의실 심의1팀장
	이진아	운영본부 총무팀 차장
	박선영	운영본부 기획팀
	박성수	운영본부 예산회계팀
	이병연	운영본부 총무팀

구분	성명	내용
전보 (7. 1.자)	손보원	조정본부 조사1팀
	임미숙	조정본부 조사1팀
	왕정민	조정본부 조사2팀
	홍준의	교육본부 교육팀
	우주현	교육본부 연구팀
	박승규	교육본부 연구팀
	강다정	교육본부 홍보팀
	김정연	심의실 심의1팀
전보 (8. 5.자)	김성찬	대구사무소 소장
	이세라	강원사무소 소장
	장성원	조정본부 조사1팀 차장
	최은진	교육본부 교육팀 차장
	최서윤	조정본부 접수상담팀

위원 동정

정은령 위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전문가 자문단 위원’ 위촉

정은령 위원(서울제4중재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은 5월 28일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전문가 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단은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사업과 운영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진아 위원, 방통위 ‘제6기 미디어 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

배진아 위원(대전중재부,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은 6월 9일 방통위 제6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김경희 위원, 방통위 ‘제5기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6월 9일 방통위 제5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제훈 위원, ‘전주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감사’ 재선임

정제훈 위원(전북중재부, 법무법인 호림 변호사)은 6월 11일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에 재선임됐다. 센터는 전주지검과 함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숫자로 본 계간 <언론중재>의 시간

계간 <언론중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된 1981년부터 현재까지 발간하고 있는 언론법제 전문잡지입니다. 내년이면 창간 40주년을 맞는 <언론중재>는 그간 국내·외 언론학, 법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현직 법조인과 언론인들이 필자로 참여하며 언론법제 분야의 귀중한 연구물들을 축적해 왔는데요. <언론중재>는 언론학과 법학 분야를 잇는 학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계의 학술적 논의와 현업 실무자들의 정책적 논의를 한 데 모으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언론중재>가 지나온 소중한 시간을 숫자로 표현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언론법제 분야의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담아낼 <언론중재>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1981(창간)



2006(100호)



2020(155호)

창간



1981. 10. 14

최신호



Vol.155

2020년 여름호

역대 특집¹⁾

132주제

특집 논문 건수



413건

호별 발행부수



800부

E-book도 동시발간

역대 연구주제 ²⁾		빈도
기본법	법적 체계의 이해	19(3.7%)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46(9.1%)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	14(2.8%)
응용부분	취재/보도의 자유와 책임	56(11%)
	재판과 선거제도	39(7.7%)
	명예훼손	96(18.9%)
	프라이버시	52(10.2%)
	반론권	88(17.3%)
	성표현물	5(1%)
	저작권	-
온라인/포털	UCC 사용자제작 콘텐츠	1(0.2%)
	포털, OSP, ISP	5(1%)
정책/기타	방송뉴미디어정책	3(0.6%)
	저널리즘	20(3.9%)
	기타	64(12.6%)
합계		50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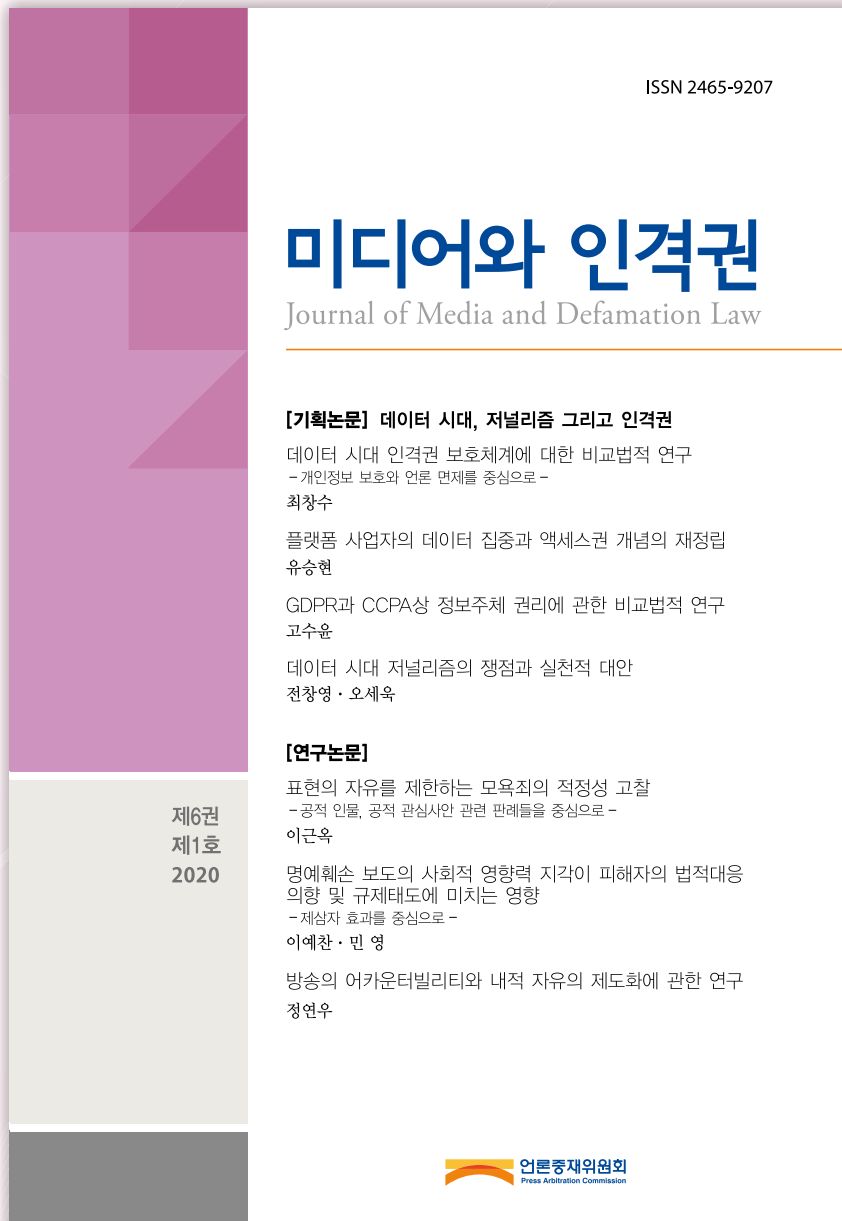
1) 계간 <언론중재>는 공통된 대주제의 논문들로 구성된 '특집'을 창간호부터 기획해 발간해왔다. 특집에는 [특집], [Focus On Media] 코너에 실린 논문 (기고문) 및 [Focus On World Media] 중 특집의 성격을 띤 일부 (Vol.131~132)를 포함했다.

2) 출처 : 이재진·박성순 (2015). 언론법제 연구의 어제와 오늘. <커뮤니케이션 이론>, 11(3), pp.213~260.

분석 대상은 창간호~Vol.125에 실린 논문 508편으로, 이후 논문까지 포함하면 연구 주제는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발간



언론중재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심도있는 학술적 논의를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정보자료실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02)397-3042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블로그 pacblog.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pacnews

카카오톡 채널 pf.kakao.com/_rthxiu